

목포의 새 실험 '지붕 없는 박물관 텐트 없는 박람회'

8월 29~31일 '제1회 전남도 혁신박람회'

빈집·상가 정비해 시·군 버스 활용
근대역사문화거리 활성화 기대
도시재생 전국 롤 모델 될지 관심

'목포형 빈집 활용 프로젝트'가 전국 도시재생 사업 롤 모델의 첫 시험대에 섰다.

목포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광주일보 5월 14일자 11면 보도>의 2번째 미션으로, 제1회 전남도 혁신박람회를 기존 축제형태의 박람회에서 탈피해 원도심 활성화와 일환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목포시의 계획이 전국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수 십 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해 부스로 사용하는 기존 박람회와 달리 원도심 일대에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22개 시·군 부스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모든 박람회가 특정 공간에서 개최되던 반면 이번 박람회는 처음 시도되는 면(面)단위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목포시는 전남도가 주관하는 제1회 전남도 혁신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달·만호·목원동 등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남의 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총리·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22개 시장·군수, 유관기관장,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전남도 홍보관, 시군 자체 홍보부스 각 1개 이상 등 대략 40개의 부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만호동 22동, 목원동 8동, 유달동 7동 등 40동의 빈집이나 상가를 정비해 부스로 사용키로 했다.

현재 이들 3개 동의 빈집 현황은 만호동 180동, 유달동 421동, 목원동 442동 등 총 1043동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또 이곳은 근대문화역사 자산이 즐비한 박물관이자 올해 초 손혜원 이슈로 전국적 유명세를 탄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중심지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는 한마디로 '지붕 없는 박물관서 텐트 없는 박람회'로 요약된다. 사업비는 행사비 4억3000만원과 빈집 리모델링비 6억원 등 10억 3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혁신 박람회로 목포의 관심도 날라라다.

단순한 박람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김영록 지사와 김중식 시장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관련 김중식 시장은 "도지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공감대를 표시했고 제1회차의 혁신 박람회인 만큼 혁신적인 마인드를 잘 살려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목포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돕

'지붕 없는 박물관서 텐트 없는 박람회' 어떻게 열리나



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시장은 "각 시군과 협조를 전제로, 박람회가 끝나고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22개 시·군의 홍보 부스로 존치해 시·군 홍보관이나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후 활용될 수 있도록 놔두겠다"면서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함께 빈집을 활용한 창의적 프로젝트가 혁신박람회라는 명칭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최우선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빈집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 22일 전남도에 공사 지도를 제출하고 24일 전남도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마친 데 이어 이달말까지 2차 정밀조사와 함께 정비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후속대책 추진 박차

주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SRT 이용객 대상 집중 홍보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 선포 이후 후속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목포시 발걸 매뉴에 대한 상품화 추진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창업 전 전문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매장 운영기회를 제공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6월 준공 예정인 '1897 푸드 스토리' 내 외식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창업 홍보지원 등이 진행된다. 창업 매뉴 아이템으로는 목포시가 기 개발한 10가지 매뉴가 활용된다.

또 시는 으뜸 맛집 책자와 리플릿도 증판 제작한다. 6월 대규모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고 각종 박람회와 설명회가 잇따라 추가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 관광과의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맛 집 책자 1000부와 리플릿 3만부가 제작된다.

특히 관광과는 최근 맛집 선정과 관련한 일부 비난 여론에 따라 으뜸 맛집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 계획에는 '우름 맛집 관리 운영 조례' 제

정도 포함됐다. 이어 시 관광과는 잇따라 개최되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해 목포시 관광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K-Festival 2019' 행사에 참가해 여행상품 전시관·공연 콘텐트관·섬 여행 홍보관 등 3개 부스를 운영, 항공축제, 맛의 도시, 해상케이블카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9 호남국제관광 박람회'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 국제관광산업 박람회'에도 참가해 '맛의 도시 목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 자산' 등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SRT 이용객을 대상으로 '목포의 맛' 홍보도 추진된다.

목포 9미를 '바다의 향기를 느끼는 3미' (민어회, 세발낙지, 홍어), '알싸한 감칠맛의 3미' (준치무침, 꽃게 무침, 갈치 조림), '잘 익혀낸 한상' (병어찌, 아귀탕, 우럭국) 등 3개 분야로 나눠 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강남에 사는 주부들을 목포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평화광장 구조 개선 추진...50억 투입 무장애거리 등 조성

목포시가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자 '쭈쭈는 바다분수'로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평화광장에 대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27일 상동 1157번지 일원 3만㎡(9057평)를 목포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평화광장이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인해 교통서비스가 낮고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가 해변과 광장이 지닌 빼어난 경관의 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돼 가로등 등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평화광장 구조 개선사업은 먼저, 인도와 녹지 공간을 재조정해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거리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바다분수 중심에 자리한 해변 데크를 대폭 개



목포시는 2021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평화광장의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선에 시민들의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음악분수 관람에 필요한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과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물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 관장주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구조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평화광장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목포대, 주관기관 선정

남악 복합주민센터에 조성키로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산학협력단 로봇산업일자리창출센터(센터장 유영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목포대는 무안군 삼향읍 소재 남악 복합주민센터 3층에 '남악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창작·소통·설계교육·전시공간)을 조성하고 3D 프린터, 3D 스캐너, 후처리 가공기, 레이저조각기, 진공 성형기 등을 갖춰 재학생, 지역민 및 지역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교육과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3D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창작활동 공간)를 조성해 혁신적 창작활동을 지원, 제조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에 선정된 목포대(주관기관)는 무안군과 전라남도(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향후 5년간 약 1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수행과 스타트업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목포대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초·중·고와 함께하는 메이커 체험 학교 '창의 메이커 School(체험형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 메이커 교실 '생활메이커 Class(교육형 프로그램)', 지역 제조업과 함께하는 메이커 실험실 '제조메이커 Lab(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kwangju.co.kr

목포서 국제 여자축구대회 10개국 참가 8월3~11일 개최

동아시아 국제축구연맹(EAFF) 산하 U-15 국제 여자축구대회 개최지로 목포시가 최종 확정됐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EAFF컵 U-15국제 여자 축구대회가 오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회에는 EAFF 회원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대만, 홍콩, 몽골, 마카오,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10개국이 참가한다.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 참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경합을 벌여 1차 회의에서 한국 4표, 중국 4표, 기권 1표로 개최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으로 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